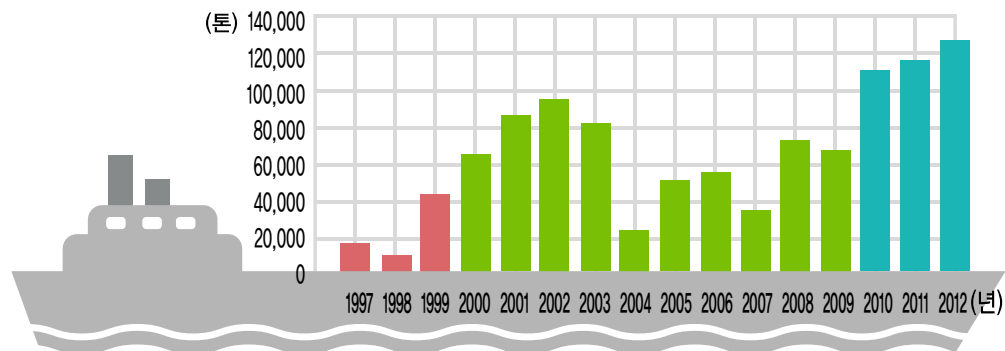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 수입산 닭고기 국내시장 빠르게 잠식한다

수입산 닭고기 국산시장 30% 육박



연도별 닭고기 수입동향 | 1998년 : IMF 외환위기 / 2003년 : HPAI 발생 / 2010년 : 수입량 10만톤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

육계업계는 최근 업계의 불황으로 농가들이 입식을 자제하는가 하면 종계감축 소식 등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kg당 2,000원을 넘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산잠재력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미 계열사와 일반 종계인들이 100만수 종계감축사업에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라 예상되고, 원종계 쿼터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장기적인 육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톤에서는 수입닭고기가 시나브로 육계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의 설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199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수입닭고기는 국내 소비시장의 3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50% 이상의 수입산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빼앗아

염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닭고기 수입 부쩍 늘어**

1995년 닭고기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2년 후인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닭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공매방식으로 약 7,000톤이 들어오는 등 물량이 미미했으나 1997년 18,214톤의 물량이 수입되면서 본격적인 닭고기 수입을 알렸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1999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97,327톤으로 전체 소비물량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육계산업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2003년에는 HPAI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하며 수입량이 IMF 이전 물량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4~5만톤 대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월 1만톤까지 수입이 들어오

면서 2010년에는 112,805톤, 2011년에는 118,707톤, 2012년에는 127,868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30%를 향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급증할 듯**

닭고기 수입선도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다. 수입 초기에는 미국,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AI 발생 이후 유럽으로 수입선이 이동하였고, 최근에는 다시 미국과 브라질로 수입선이 옮겨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와의 FTA가 체결되어 관세인하가 지속적으로 내려감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kg당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는 미국산이 2,275원, 덴마크산이 2,667원, 브라질산이 3,581원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변수**

닭고기 수입은 일반적으로 해외시장 동향과 국내 시세,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12년도의 경우는 환율강세와 미국·브라질산의 생산량 감소, 국내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일부 업체의 닭고기 수입가담으로 기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입닭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시장의 잠식

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생산량만으로도 공급과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 이행으로 닭고기(냉동) 현행 관세율(2013년 기준, 미국:16%, EU:14%)이 10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22년에는 무관세가 되며,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조금사업 동참이 국내 육계산업을 지킨다**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계실적을 보면 매년 3~4%씩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수입닭고기를 막기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국민들로부터 국산 닭고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내 닭고기 시장을 책임지고 농가와 상생을 해 나가야 하는 계열업체들이 앞장서 수입닭고기를 사용·유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닭고기 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국산 닭고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내 육계산업을 보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징수되는 제도로서 양계농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공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믿음과 신뢰'라고 말한다. 안정적인 계열업체의 성장과 발전은 농가의 안정적 수익확보로 이어지고, 농가의 사육 경쟁력과 성적 향상은 회사의 사육 원가 절감과 수익으로 반영되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체리부로 사육농가협의회'는 2003년 업계 최초로 결성되어 금년 10주년을 맞고 있으며, 사육 농가를 대표하여 회사와 활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급격한 매출감소와 금융권 대출금 회수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해 11월 '체리부로 농가협의회'가 주축으로 임직원과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 농가의 이탈도 없이 회사의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회의신청 1년 9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회의면제를 받았다.

체리부로는 앞으로 전문화된 부문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각 사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한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식품문화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김인식 대표를 통해, 종계감축 사업 및 자조금대출금 인상안에 따른 향후 양계업계의 전망을 들어봤다.

**■닭고기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닭고기자조금 30억원을 통한 종계도태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이 양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익히 아시다시피 국내 육계 산업은 2011년 하반기 이후 공급 불균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앞



**인터뷰하자**

**종계도태사업 수급불안정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돼**

종계도태사업, 일련에 따른 도태계획·실행·확인절차 명확해야... 닭고기자조금, 수급조정과 소비홍보에 균형있게 예산 편성돼야

을 예측하기 힘든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내 육계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종계 도태를 통한 수급조정을 통해 산업안정화 방안이 결정되고 실행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명확한 도태가 이루어져 수급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수급불안정을 상당히 해소하여 4월부터 닭고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협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련에 따른 도태계획, 실행, 확인 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수급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에 대한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조금 거출금 인상을 통해 자조금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닭고기 자조금 사업은 작년 2012년에 이르러 전체적인 운용기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조금 예산은 수급조정과 홍보교육, 크게 2가지로 사용처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중요하며 상황 및 시기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예산은 수급조정에 대한 집행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확충을 위해 거출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책정과 집행과정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 비효율적인 집행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사육농가의 거출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닭고기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육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광고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육환경이나 전문성 확보 등 소비자 만족을 위한 현실적

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잊지 않는다면 담당자와 전문가 그룹의 협의를 통해 세밀하고 창의적인 세부 실행 사업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닭고기 소비가 줄었습니다.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양계농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은 국내 닭고기 소비 감소와 더불어 값싼 수입 냉동육의 유입이 다른 해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지속적인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역시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열화사업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육단계 농가의 경우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사육관리와 동물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육기술, 관리요소, 사육환경 개선 등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욱 세밀한 애정과 정성의 손길은 생물 사육에 있어서 설비나 최신 사육환경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H O T  
ISSUE

# 국내산 통해 섭취하는 항생제 미국산의 1/10 수준

## 평생 섭취하는 항생제는 감기약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

닭고기를 통해 평생 먹게 되는 항생제의 양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80년이라고 보았을 때, 닭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항생제의 양은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 한 알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의 장내세균 감염증이나 호흡기 질병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Tetracycline(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국내 허용기준은 0.2ppm이다. 이는 미국에서 닭고기나 칠면조의 잔류허용기준인

2.0ppm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간 섭취하는 닭고기는 10kg이므로, 국내 소비자가 1년간 닭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항생제는 2mg 정도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인 80년을 곱하면 160mg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감기약 한 알에 있는 항생제량이 200mg이므로, 평생 닭고기를 먹어 섭취하는 항생제가 감기약을 한번 먹어 얻게 되는 항생제량보다 적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닭고기 항생제 검사는 출하 전 검사와 도계육 검사, 정부검사를 통해 3중 관리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사료내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보다 강화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관리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

오히려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점점 관세율이 감축되어 2022년에는 무관세가 되는 미국산 닭고기(테트라사이

클린 허용기준 2.0ppm)의 수입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산 닭고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입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항생제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올바른 닭고기 항생제에 대한 지식으로 국내산 닭고기를 보다 많이 소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 가축재해보험, 축사보상 기준 제각각

손해사정인들의 보상단가책정 방식도 달라

가축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정부에서 상당부분의 보험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50%를 보조해왔으나 올해 들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면서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료를 책정·보상함에 있어 손해사정인들에 의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의 경우 사육마리수와 마리당 보상단가가 책정되어 농가에서도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축사에 대한 피해시 보상기준이

복잡하고 손해사정인들의 보상단가책정 방식이 틀려 보상을 받은 농가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사 보험가액 산출방법은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 등의 건물을 현재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축가액(신건축비용)을 구한 후, 경년 및 사용소모에 대응하는 감가를 공제하여 현재가액을 산출한다. 보험가액 산출방식은 신축가액에서 감가공제액(신축가액×(1-(경년가감율×경과년수)))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축사 사용도중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감정원의 건축단가표의 감가율을 적용하고 축사가 오래

돼 감가율을 경과한 건물에 대해 수정감가율을 70%까지(보온덮개는 50%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사의 건물구조에 따라 감가율도 다르게 적용돼 농가에서는 복잡한 보상단가를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지역 5만수 사육농가기준으로 연간보험료는 126만원선이다(주계약 기준). 여기에 전기로 인한 화재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약을 포함하면 약 20%의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축사시설 피해보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한 경우 연 1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제하면 농가부담은 전체 25% 수준으로 연 70만원 선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013 한국국제축산 박람회 개최

대구 엑스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리미엄 존 신설해 선착순 신청받아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장 이승호)가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오는 9월 25~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참가업체의 신청기간은 1차 2월 15일부터 4월 30일, 2차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박람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축산 관련 품목이 전시되고, 학술 세미나 및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축산 관련 업체와 농가의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농가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영위 측은 전시장 주요 동선 상에 구획된 17개의 독립부스를 '프리미엄 존'으로 신설하여, 전시업체가 1차 등록기간(2월 15일~4월 30일) 중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위치를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관심있는 축산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신청 문의 : Tel. 02)574-0465  
홈페이지 www.kistock.co.kr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는 축산기자재, 급여·급수 시설, 리모델링 관련 설비, 배합사료 기자재, 품종 개량 장비,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될 예정이다.

# 전 세계적 HPAI 감염으로 확산차단 요구돼

HPAI 감염으로 캄보디아 6명, 중국 1명 사망  
각 지자체 방역시스템 강화...양계농가의 자체방역도 중요한 시점

최근 캄보디아와 중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양계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지난 2월 13일 성명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3세 여아로 폐사한 가금류와 접촉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언론들도 캄보디아 남부와 인접한 베트남 일부 농가에서 AI에 감염된 가금류가 발견돼 3천 4백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AI로 20대 여성 한 명이 숨졌으

며, 30대 남성 한 명도 병원에 입원했지만 위독한 상태이다.

AI는 독일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독일 동부 지로우 지역에서는 현지시각으로 2월 15일 H5N1이 확인돼, 독일 방역당국이 2월 16일 해당 지역의 오리 1만 4천마리를 살처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조짐을 보이자, 국내에서도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 연휴와 중국의 춘절을 맞이한 대규모 인구이동에도 HPAI 발생은 없었으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올해 5월까지의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

가 높다.

이에 강원도는 농정국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AI 특별방역 지역담당관제'를 도입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에서 오는 3월 8일까지 도내 종계장 17개소에 대해 HPAI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AI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철새서식지와 과거발생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HPAI가 발생하며 양계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시스템에만 의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계농가 스스로 철저한 방역차단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HPAI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H O T  
ISSUE

0 0 3



# (주)체리부로농가협의회 창립10주년 기념대회



기념 행사시 5천 912만원 농가에 환원



(주)체리부로농가협의회(회장 박준영, 백승립) 창립 10주년 행사가 지난 20일 청주시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다. 이번에 농가에 환원·지급한 총액은 5,9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이날 “농가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10년·5년·3년 협력농가 총 25명에게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였고, 생산지수 400클럽(임근수 씨 등 4개농가)을 비롯 300클럽을 넘는 농가들에게 상패 및 격려금을 지급하였

들의 협조로 체리부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농가소득은 물론 육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축사로 나선 이준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계열화법이 2월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상생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5월에 개최되는 전국 양계인대회에 많이 참석하여 육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농가들은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AI 등 질병예방, 상호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농가협의회는 지난 2003년 11월 결성되어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10개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성된 이후 2003년말 발생한 AI로 인해 회사가 화의신청에 들어갔을 때 농가들이 힘을 모아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벌였는가 하면 2011년 시설중이던 부화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농가들이 방문하여 십시일반 도와주는 등 회사와 농가들 간의 믿음이 끈끈한 모임체로 발돋움하였다. 2006년에는 충북 음성에 첨단도계설비를 통해 위생적인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2012년에는 사료요구율이 1.5대로 진입하는 등 서로의 노력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해왔다. 또한 체리부로는 닭고기 자조금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정부, 축사거리제한 기준 대폭 조정해

양계협회, 양계농가의 부담덜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장

앞으로 무허가 계사에 대한 제한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농림수산물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거리제한 기준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축사거리제한의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2014년까지 50개 시·군 표본조사를 통해 축종별 적정 거리제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권고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허용되지 않게 되며, 정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이전명령을 내리되 적법화 추진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단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1~2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정기월례회의에서 “현재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통해 축사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계사가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원칙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기불황과 수입산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 추적60분, 항생제 간이 정성검사로 혼란 야기해

항생제 검출을 전제로 한 기획취재의 폐단 여실히 드러내

추적60분팀이 축산물 항생제에 대한 간이 정성검사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항생제 검출을 전제로 기획 취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방영된 KBS 추적60분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항생제 검출에 대해 다뤘다.

하지만 추적60분팀은 정성검사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 상당부분 양성인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정성검사는 단지 항생제 잔류유무를 확인하는 1차 간이 검사라면서, 항생제의 기준치 초과 여부는 정량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방송의 문제점은 국내산 축산물의 항생제 검출을 목적으로 한 기획취재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청자의견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항생제 검사하고 수입산은 검사를 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그동안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방영기로 했던 추적60분을 설연휴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번 방송 이후의 추이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부에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농림수산물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계농가들이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총사업비 1,700억원을 투입해,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의 현금거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나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외상거래 시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부에 3월 6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양계농가는 농가당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양계가 4천원이다. 대출기관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이고,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일시상환(3%)이다. 지원대상자는 시·군부에서 3월 11일까지 선정하며, 특히 공동구매 농가, 전업농(양

계 3만수), 구제역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가능하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농가가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한도액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대출기관은 구매계약을 확인한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료업체에 융자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사료의 원료곡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점점 빈번해지는 기상재해와 신흥국의 곡물수요 증가로 인해 곡물수급이 불안정하고 사료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이런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 베트남 닭고기 유통현지조사를 다녀와서 (1)

베트남 현지 냉장육 닭고기 마리당 8~9천원선, 저렴한 한국산 노계육 수출가능성 높아



산란노계육 가격은 육계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포장지에 산란계육임이 표시되어 있다.

2012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육용종계노계 시장가치증대방안 연구용역조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닭고기 소비현황을 보기위해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출장을 다녀왔다. 닭고기 수출을 위한 국가라고 하기엔 다소 생소한 베트남은 최근 노계육의 수출량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에서 '폐계'라 하여 저평가 받았던 노계육

의 새로운 수요 창출국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노계육 수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지에서 한국산 노계육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차츰 수출재개를 위해 관련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수도이자 물류중심지로서 항구와 가까워 베트남 내에서도 물자이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양계단지가 발달하지 못해 집약사육형태보다는 자가 사육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지 물가를 감안하였을 때 베트남산 냉장육 닭고기는 마리당 17~19만동(한화 약 8~9천원)으로 가격은 비싼 편이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 때문인지 태국 CP사 등에서 수입되는 냉동닭고기 부분육 시장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6~9만동(한화 약 3~5천원)/kg으로 냉장육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질긴 식감을 선호하기 때문인지 재래닭과 육계뿐만 아니라 투계육과 산란노계육 또한 시장의 상당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닭고기를 판매하는 식육매장에는 어김없이 오리고기와 비둘기, 메추리 고기 등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소, 돼지, 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식육매장에 비해서 다양한 가금류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베트남 쌀국수를 떠올릴 것이다.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생겨 우리에게 상당

히 익숙한 음식이 되어버린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의 기본 육수는 닭고기를 삶아 우린 닭육수이다. 과거 베트남으로의 우리나라 노계육 수출이 활발하였던 당시, 그 이유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노계육 수출업자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닭고기를 꼭 고아 삶아 먹는 식문화 때문에 질기지만 가격이 저렴한 우리나라 노계육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 금번 회차 소식지부터 육계 질병가이드 칼럼을 알게 된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의 윤종웅, 성도현 수의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주로 필드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닭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엮어보려 합니다. 평소 궁금한 내용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감보로병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Q. 육계에서 감보로병이 2주 전에 주로 발생하는 농장입니다. 백신일정을 10일령 이전으로 충분히 당겨서 해도 매번 감보로가 발생합니다. 언제 백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백신은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육계질병가이드 / 감보로병, 감보로 백신

A. 감보로병은 근절이 쉽지 않은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바이러스가 매우 작고 외피막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소독제에 잘 견딥니다.

농장에서 감보로병이 한 번 발병된 경력이 있는 농장은 다음 입주에서도 거의 계속 발생합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는 닭이 없는 계사에서도 6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농장 전체에 다시 오염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지므로 발병일령이 점점 빨라집니다.

14일 이전에 감보로가 발생한다는 말은 농장이 병원성 야외 바이러스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9~10일 쯤 백신을 하고 2~3일 이후에 발병한다면 그것은 바이러스 농도가 이미 높고, 백신을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미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백신만으로 질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독과 계사비우기가 우

선이고 소독제도 최소 2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히 바이러스 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울인·올아웃으로 전계사를 비우고 계사주변까지도 소독과 건조를 반복해주시고.

삼중염, 알데하이드, 페놀계의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추가적인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농장이라면 정확히 사용 방법을 지켜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흙바닥, 보온덮개를 사용하거나 깔짚을 다시 사용하는 농장, 주변정리가 되지 않은 농장에서는 충분히 소독한 이후에도 소독의 효과를 100%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훈증소독 작업은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너무 일찍 하면 오히려 병을 막지 못하고 닭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감보로백신 중 중간독 플러스로 분류된 종류의 백신은 14일 이전

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체이행항체가 충분히 감소되지 않아서 백신의 효과도 감소될 수 있으며, 14일 이전에는 닭의 F낭에 있는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F낭과 흉선은 닭의 면역세포를 성장하고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두 기관에서 훈련된 세포들이 비장, 장간막, 기관 등 곳곳의 면역기관으로 실전 배치되는 시간이 2~3주령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감보로 백신을 실시하면 훈련을 마치지 못한 세포들이 생겨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감보로 백신은 늦출 수 있는 한 충분히 늦게 투약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이전에 충분한 소독과 올바른 차단방역이 질병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 보고받자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대의원 총회, 3월 6일 개최기로 종계감축안과 거출금 변경안 검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닭고기자조금 30억원을 통한 종계감축안과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을 논의한다.

#### 신입사원 채용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국산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될 총무회계팀 신입사원 신찬규(申燦奎, 24세)를 채용했다. 신찬규 직원은 경북대학교 세무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앞으로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와 닭고기 홍보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사)대한양계협회



#### 육계분과위원회, 양계농가의 자립을 위한 방안 강구해

수평계열화 및 종계도태, 거출금 인상안의 필요성에 공감형성



주부터 계열화사업이 진행되지만 현재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에 대해 "현재의 사업법으로는 계열사만 덕을 보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계농가가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2월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청주시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계농가의 생존을 위한 수평계열화, 종계도태에 따른 사후대책, 자조금거출금 인상, 닭고기 수입대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준동 회장은 "다음

수평계열화를 통해 목우촌 등에 닭을 직접 팔며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흔히 계열사에게만 잘 보이면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영원한 갑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양계농가들이 계열사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몇 십 만수를 키워서 계열사에 다 주기보다는 전업농이나 가족농을 지향하며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육용종계 100만수 감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종계도태로 인해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홍재 부회장은 앞으로 자조금 거출인상을 통해 18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의원 총회에서 종계도태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안건으로 수입 닭고기 대책회의에서는 이준동 회장이 올해 1월에 닭고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며, 앞으로 업체를 선정해 집회에 나서고 정부산하기관과 논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국산닭고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3월 6일로 예정된 육계인토포론회에서는 '계열화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대전제로 수평계열화 및 국산닭고기 브랜드화, 무허가 축사, 농가쿼터제 등에 대한 토론을 펼치기로 의결했으며, 육계관련 일반시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양계농가의 생존은 계열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양계농가가 협력하여 양계농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계분 비료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 가축퇴분비료의 지원단가 상향조정해야

본회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에 있어 가축분퇴분 비료 사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상향을 건의하였다.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에 따르면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구매시 최대 80%까지 구매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 기준 1,400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반면, 가축분퇴비는 등급별 차급 지급되고 있으며 1등급 부산물비료의 경우 최대 1,200원/20kg으로 지원단가

가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갈수록 자연순환농업이 강조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가축분퇴비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들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등 축산분뇨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산물비료의 보조금을 증액하여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포천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축산업허가대상자(50㎡ 이상농가) 2014년 2월 22일까지 의무교육 이수해야



2월 21일(목)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포천지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약 130여 명의 회원농가가 모인 가운데 육계지부

와 산란계지부가 나뉘어 8시간(사육기간 3년 이상, 50㎡ 이상 허가대상농가)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2013.2.23)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종사자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50㎡ 이상농가)는 의무 교육시간을 오는 2014년 2월 22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시



간은 신규농가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허가제대상농가는 8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 허가제대상농가는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농가(50㎡ 미만 소규모 농가)는 6시간으로 사육경력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신청은 농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

스템(www.farmedu.kr)” 참조>  
본회에서는 산하 도지회 및 지부에서 교육신청인원이 30명 이상 등록될 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농가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비를 일정부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사)한국계육협회



### 한국계육협회, MBC 여성시대, SBS 컬투쇼 라디오 방송 통해 닭고기 홍보

#### 3개월 간 사연 당첨자에게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 세트 증정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라디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월 1일(금)부터 MBC의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인 ‘여성시대’를 통해 사연 당첨자에게 닭고기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 5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되며, 9시 50분을 전후해 “한국계육협회에서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세트를 제공합니다”라는 멘트로 소개하고 있다. 이 방송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진행된다.

또한 2월 16일(토)부터는 SBS ‘두시탈출 컬투쇼’의 ‘푸드테라피’라는 코너를

통해 사연공모전을 진행해 응원이 필요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선정해 닭고기 세트를 증정하고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며, 2시 15분경 “토요일 푸드테라피에 소개된 분들께는 한국계육협회에서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 세트를 드립니다”라는 멘트가 소개된다. 이 방송은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한 달 동안 진행된다.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사연공모를 통해 닭고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지효과 유도를 기대한다”며 청취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프로그램명	진행자	주파수	방송시간	청취율	주요내용
MBC 여성시대	양희은 강석우	표준 FM 95.9MHz	월~일 오전 9:05~11:00	10% 내외	- 2월 ~ 4월까지 3개월 간 진행(매일) - 사연 당첨자에게 닭고기 선물세트 증정
SBS 두시탈출 컬투쇼	컬투 (정찬우, 김태균)	파워 FM 107.7MHz	월~일 오후 2:00~4:00	18% 내외	-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 간 진행(매주 토요일) - 토요 코너인 ‘푸드테라피’를 통해 사연공모 - 선정된 사연에 닭고기 선물세트 증정

## (사)한국토종닭협회



### 2013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공로패에 김춘진 국회의원 수상



기총회를 지난 2월 22일 대전 소재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김연수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 감사보고’와 ‘2012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2013년 (사)한국토종닭협회 대의원 정

산’,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연수 회장은 “작년 우리 산업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축산물 과잉공급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서 “협회는 작년부턴 종계, 실용계 수급 조절을 수차례 시행해 왔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회원과 회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축산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때일수록 토종닭 산업 종사자 모두 합심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안전토의에서 대의원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토종가축 관련 축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갖춰진 만큼 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토종닭 자조금으로 수출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소비홍보

#### [수상자명단]

1. 공로패 /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 2. 감사패

- 방역 부문 / 최정록 과장(농림수산물부 방역관리과)

- 언론 부문 / 위계욱 기자(농업인신문)

- 소비홍보 부문 / 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외철 대표(토고꼬)

- 일반부문 / 김용철 축산전략상무(농협중앙회), 서재호 사무관(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과), 김성구 사무관(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 김생기 시장(정읍시청), 조선기 계장(전북도청 축산과), 김현우 직원(철원군청 축산산림과), 최희철 과장(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이수훈 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품질관리과), 이승호 회장(축산단체협의회), 김광천 실장(농수축산연합회), 최양상 이사(주)체리부로, 김필수 경위(서울지방경찰청)

### 「종계부화분과 위원회」 개최

#### 토종닭 산업 발전 위한 종계 수급 조절 논의



지난 2월 13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식 당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위원장 정학동)가 열렸다.

이날 협회는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농림축산부 개칭에 대한 인수위 대응, 토종병아리 분양 내역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안전토의에서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축산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토종닭 종계 자율감축에

로 산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상식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고 토종닭 산업 발전에 공이 큰 김연수 회장에 대한 대통령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김일한 부산·경남지회장에 국무총리상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가축 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정학동 종계·부화분과위원장과 작년 한 해 동안 수급조절을 위해 애쓴 심순택 수급조절분과위원장, AI 가상훈련을 충실히 수행한 본 협회에 대한 장관상 전달식이 있었다.

이후 이어진 임원진 승인건에 대해서는, 올해로 임기를 다한 회장직에 현 김연수 회장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7대 회장으로 연임키로 했다.

대해 열린 논의를 했다.

특히 최근 토종닭과 토종병아리 시세가 안정된 것은 수급조절의 효과인 것에 공감하며 재차 수급조절로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인위적 감축보단 토종닭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이에 대한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Today's  
계림 열전  
林戰

# 닭다리 더덕불고기

더덕은 홍삼이나 인삼에 풍부한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력회복에도 좋은 음식이다. 고단백·저칼로리인 닭다리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기력도 회복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재 료 닭다리(전처리후) 300g, 더덕 100g

양 념 간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굴소스 1큰술, 고운고춧가루 1 + 1/2큰술, 청주·설탕 각 1큰술, 물엿 3큰술, 다진마늘 1큰술, 다진파 1큰술, 깨소금 1큰술, 녹말 1/2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Cooking

1. 닭다리는 뼈를 발라 먹기 좋은 크기로 납작하게 저민다.
2.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0.5cm 두께로 저며 밀대로 밀어 부드럽게 만든다.
3. 양념은 재료를 잘 혼합한다.
4. 넓은 그릇에 닭다리, 더덕을 담아 ③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30분간 재운 다음 굽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놀이 날말맞추기

1			3		10
			4		
2		5			
				8	
		7			
	6			9	

◇가로풀이 ✨ ✨

- ① 컴퓨터·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새로 등장한 전달 매체, 인터넷·케이블·TV 등을 일컬음
- ② 영화개봉 전, 관계자만이 시사를 보는 일
- ④ 설탕, 사카린, 포도당, 물엿 따위의 단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
- ⑥ 윈도우에서 서로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나타낸 것
- ⑦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홍제동 경계에 있는 산
- ⑧ 날짐승의 목은 깃이 빠지고 새 깃이 남
- ⑨ 어떠한 명목을 붙여 주의·주장을 앞에 내세움

◇세로풀이

- ① 1930년대 로드아일랜드 레드종을 개량하여 육성한 난육겸용종으로, 깃털은 대체로 호두색이고 체형이 길지 않은 품종
- ③ 말소리 또는 말투의 차이에 따라 말이 주는 느낌
- ⑤ 카메라에 붙어 있는 작은 텔레비전 화면 또는 광학렌즈
- ⑧ 단위가 다른 수량을 대조·열거하여 환산하기 위해 편하게 만든 표
- ⑩ 가축에게 주는 먹이

41회 정답

정	당	방	위	육
거			기	내
장	담		일	
	동		발	재
수	집	벽		무
건		감	독	관
				청



... 42호 정답은 43호에 게재합니다

## 소개하자 농진청이 15년간 품종복원한 '우리맛닭'



육질이 쫄깃하고 육향이 뛰어난 토종닭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과정을 겪으며 멸실된 한국 재래닭을 15년에 걸쳐 품종 복원하여 개발·육성한 토종닭이다.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 이후 토종닭 맛을 찾는 소비자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품종이 국내에서 사육되어 가짜 토종닭으로 등장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15년간에 걸쳐 12개 계통으로 순종 복원하였고, 순종 3~4종을 교배하여 최고의 맛을 내도록 하여 우리맛닭을 개발해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우리맛닭은 감

칠맛을 내는 핵산물질 이노신(Inosine)이 풍부하며, 풍미성분인 글루타민산 성분이 매우 높다. 필수아미노산인 메치오닌과 시스틴 성분도 높으며, 피부노화방지 효능이 있는 콜라겐 성분도 풍부해 육질이 쫄깃하고 육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장속도가 빨라 경제성이 있고 우리 국민의 식성에 맞게 개발된 품종이다.

우리맛닭은 50일 사육한 삼계용이 생체중 800g이고 100일 사육한 백숙용이 2kg이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종계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 AI 차단방역 철저

S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S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